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12 >

멘탈이 불안하다 는게 무슨 소리죠?
이현은 굉장히 제 멋대로입니다.
자기 하고싶은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런데도 박대리님은 이현을 1순위로..
네, 전 이현을 1순위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하의 이현도 재작년 드래프트에서 물을 먹은 후, 확실히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폭행, 이성문제 등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확실히 팀웍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단 한 명이 팀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도 꽤 있구요.
성격은 그렇게 간단히 변하는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성격이 변했다는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멋대로인 성격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절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정도? 그도 성인으로 성장을 할 시기이기도 하고요..
왜 그런 판단을 하신거죠?
지난 1년 큰 사고가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적입니다. 대학리그에서의 성적은 오로지 야구만을 생각했을때 나올 수 있는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드래프트를..
드래프트를 말긴다고요?!!
그..그건 안됩니다! 스카우트팀에만 제 위로 두 명이 있거든요!!
걱정 마세요. 곤란하지 않게 할테니.
됐죠? 그럼 가보세요.
네? 아.. 아..그.. 그..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디자인 | 김청조 기자 minigram@donga.com

Culture diary

SWOT으로 보는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



사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예매율이 줄곧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단 한 편의 영화를 향한 관객의 '절대적인' 지지의 표현이다. 27일 마침내 공개된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캡틴3·사진)를 둘러싼 상황이다. 흥행성공은 기정사실. 이제 관심은 영화의 흥행 수치가 어디까지 오를 지로 향한다. 보든, 보지 않든, '캡틴3'는 한동안 극장을 찾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게 분명하다.

오가 추구하는 유머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 가령 앤트맨이 유독 아이언맨에게 까다롭게 구는 이유는 앞서 마블스튜디오의 영화들을 빠짐없이 보지 않은 관객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즉 '아는 만큼 재밌다'는 뜻이다.

STRENGTH(강점)···영화 그 자체

히어로 무비의 명가로 통하는 마블스튜디오는 이제 그 이름만으로 '흥행 보증 마크'로 통한다. 매년 기술발전은 물론 복합적인 이야기 개발에도 속도를 내는 마블스튜디오가 내놓은 최신 버전이라는 사실은 '캡틴3'의 최고 무기다. 사실 마블스튜디오가 배출한 수십 명의 히어로 가운데 캡틴 아메리카는 냉정하게 평가해 인기가 덜한 편. 이를 만회하려는 듯 이번 '캡틴3'에는 아이언맨부터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는 물론이고 스파이더맨과 앤트맨까지 마블 출신 히어로가 총집합했다. 이보다 화려한 물량공세는 없었다.

OPPORTUNITY(기회)···극장가 비수기

누군가의 위기가 또 다른 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캡틴3'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 두 달 동안 극심한 비수기를 경험한 극장들의 상황이 오히려 '캡틴3'에는 기회를 넘어 호재다. 두 달째 매출 감소로 스트레스를 받은 극장들이 오랜만에 나타난 대작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캡틴3'에 많은 스크린을 배치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흥행에 유리한 환경까지 마련됐다.

이에 더해 경쟁작으로 뿔뿔만한 영화도 '전무'하다. 한국영화, 외화를 통틀어 경쟁작이 없다. 한마디로 27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극장은 '캡틴3'의 차지다.

WEAKNESS(약점)···마블의 유머

보통의 히어로 무비는 시리즈로 제작돼 이야기의 연속성을 다진다.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도 마찬가지. 캡틴 아메리카의 탄생을 알린 1편, 적과의 대결을 그린 2편을 잇는 이번 3편은 영웅들의 활동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놓고 대립하는 캡틴 아메리카(크리스 에반스)와 아이언맨(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싸움이 주요 내용이다. 물론 1, 2편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다. 하지만 즐거움을 넘어 마블스튜디오의 재미를 떠나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독과점 논란'이 있다. 개봉 첫 주말이 시작하는 29일부터 5월1일까지 최대 2000여 개의 스크린을 '싸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사외전'이 가지고 있던 '스크린 독점'의 불명예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작품 자체로 평가받기 전에 '노이즈'부터 연계 되는 셈이다. 더욱이 '검사외전'은 극장들의 스크린 몰아주기의 혜택 속에 흥행 질주를 펼쳤지만 결국 원하던 1000만 관객 동원에는 실패했다.

■ 새 영화

●태양 아래
27일 개봉 | 감독 비탈리 만스키 | 상영시간 92분 | 전체 관람가

'진짜' 북한 사회를 엿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감독이 러시아와 북한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북한 사회를 카메라에 담았다. 감독은 평양 주민들의 일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8살 소녀 진미(사진 오른쪽)를 만난다. 진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기념 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소녀. 감독은 북한의 허가를 받고 진미의 일상을 촬영하기로 한다. 하지만 촬영 전날, 진미의 집은 새 아파트로 바뀌고 가족이 먹는 밥의 질도 달라진다. 촬영 때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경호원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게 진미가 살고 있는 평양은 거대한 세트장이 된다.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지만 사실 '트루먼쇼'에 가까운 영화다.

Biz gallery

필립스, '팬츠 그루밍' 풀 라인업 출시

현대아이비티의 비타브리드가 '2016 월드 셀렉션'에서 화장품 분야 최고 영예인 '그랜드 골드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비타브리드 C12 스킨(사진)은 세계 유망혁신 바이오 기술을 비타민C에 적용한 것으로 화장품과 혼합하여 피부에 바르면 비타민C를 1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피부에 전달하는 특징을 가진 신개념 비타민C 제품이다. 월드 셀렉션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1961년 설립된 국제 품평회로, 영국 런던의 국제주류품평회(IWSC),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국제주류품평회(SWSC)와 더불어 세계 3대 품평회로 손꼽히는 권위 있는 대회다.

비타브리드 '월드 셀렉션' 그랜드골드상 수상

바이오 벤처기업 ㈜엔도더마(사진)는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부지면적 약 4만1644㎡(1만2597평), 건축면적 2546㎡(770평) 규모의 공장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돌입한다. 엔도더마는 진피 약물전달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 마이크로니들형태의 화장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엔도더마가 독자적 특허 기술을 개발한 마이크로니들은 유효성분의 피부 내 전달효율을 기존 제품 대비 80% 개선했고 한번 부착으로 최대 7일간 효과가 지속되는 패치형태의 셀프 필러형 제품이다. 피부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는 생분해

엔도더마, 마이크로니들 화장품 공장 완공

성 소재를 미세한 니들로 구현해 피부 침투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모로칸오일 '스타일링 듀오 세트' 한정판매

모로칸오일이 가정의 달을 맞아 '스타일링 듀오 세트'(사진)를 5월 한정판매한다. 이 제품은 건강과 스타일링을 한 번에 잡아줄 '모로칸오일 트리트먼트'와 '스무딩 로션'으로 구성됐다. 모로칸오일 트리트먼트는 아르간 오일이 함유돼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준다. 스무딩 로션은 잔머리와 정전기를 제거해 부스스함과 영김을 방지해 주는 제품으로 바로 드라이 시 미디엄 홀딩

에르브로리앙, '리퀴드 BB 쿠션' 선보여

에르브로리앙이 부드러운 동안 피부로 가꿔주는 '리퀴드 BB 쿠션'(사진)을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촉촉한 베이비 스킨 효과를 지닌 쿠션으로, 즉각적으로 수분을 선사해 피부를 촉촉하게 연출해 주고, 피부 톤링 효과 및 상쾌함을 부여한다. 또한 6년산 인삼 추출물을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를 더욱 매끄럽고 탱탱하게 가꾸어 주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인삼, 감초 등 동안 피부에 효과적인 성분이 피부 탄력을 높여주고, 피부 안색을 맑고 활력 있게 개선해 준다.